

1위
ABC 공인 유료 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FA등급제 도입 2년째...잡으려는 구단-'운신의 폭' 넓히려는 선수 '치열한 머리싸움'

'A등급' 서건창 불운 'B등급' 최재훈 행운



예비 FA는 물론 1~2년 뒤 그 자격을 얻는 선수들까지 스토브리그에서 치열한 머리싸움을 펼치게 됐다. FA 등급제가 낳은 풍경이다. 연봉 자신사까지 했던 서건창(왼쪽)은 트레이드 이적으로 A등급이 됐고, 포수 최대어로 꼽히는 최재훈은 B등급이 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스포츠동아DB

FA이적시 새 팀의 보상부담 줄이려
키움서 1억 2500만원 깎았던 서건창
LG선 팀 내 연봉 2위로 A등급 '헛일'

스토브리그의 최대 관심사는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다. 외국인선수 영입, 트레이드 등의 다른 굵직한 이슈들도 FA들의 행선지만큼 관심을 끌진 못한다. 올 겨울부터는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추가됐다. FA를 1~2년 앞둔 이들의 연봉협상 결과다. FA 등급제 도입으로 '예비 FA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구단과 선수들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KBO는 22일 2022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등급제는 올해부터 치열한 머리싸움의 경연장이 됐다. A등급은 '최대어'로 꼽히는 나성범, 김재환, 박건우 등 5명이다. B등급은 9명이다. 눈에 띄는 이름은 A등급 서건창(32)과 B등급 최재훈(32)이다.

이 둘은 나란히 이번에 처음 FA 자격을 얻었다. 20대 중반부터 리그 대표 선수로 발돋움했고 꾸준한 경기에서 연봉을 올려왔음을 고려하면 A등급이 당연했다. 신

규 FA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연봉 순위를 기준으로 A등급은 구단 내 1~3위, 리그 전체 1~30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B등급은 구단 내 4~10위, 리그 전체 31~60위에만 해당된다.

서건창의 경우 올 시즌 연봉을 전 소속팀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했다. 지난해 3억5000만 원을 수령했던 그는 1억2500만 원 삭감된 2억2500만 원에 도장을 찍었다. 선수 측에서 원한 삭감이었다. 프로는 연봉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자신해서 연봉삭감을 얘기하는 자체가 초유의 일이었다. FA 이적 시 원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이 A등급보다 적은 B등급을 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기를 마친 뒤 LG 트윈스로 이적하면서 모든 계산이 어긋났다. LG의 최근 3년 연봉 순위에선 채은성(3억1000만 원)에 이어 서건창(3억833만 원)이 2위다. 결국 A등급으로 분류됐다. 키움에 있었다면 박병호(16억6667만 원)~이정후(3억9000만 원)~최원태(3억1000만 원) 등에 밀려 3위권 밖이 돼 B등급이 됐을 터다. 괜히 연봉만 스스로 깎은 꼴이 됐다.

최재훈은 약 500만 원 차이로 A등급을 받지 못했다. 팀 내에선 최근 3년 평균 연봉 순위 3위 안에 포함됐지만, 리

한화서 연봉랭킹 3위 안에 드는 최재훈
적은 금액 차로 전체 30위 못들어 B등급
붙잡고싶은 한화엔 난감한 상황 연출

그 전제에선 30위권에 들지 못했다. B등급으로 내려가면서 선수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그를 잔류시키고 싶은 한화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

루지엔 LG 감독은 최근 이적에서 진행 중인 마무리캠프에서 최재훈과 만나 "타석에서 끈질기게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타자다. 필요한 선수"라고 밝혔고, 한화 관계자 역시 24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등급을 떠나 최재훈은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다.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엔 예비 FA들의 연봉을 고과 기준보다 높게 주는 풍조가 지배적이었다. 보상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FA 등급제의 도입과 에이전트의 가세로 머리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2023년 FA 자격을 얻을 이들도 올 겨울 열심히 주판알을 튕길 수밖에 없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3·4면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넷플릭스 TV쇼 1위 '지옥'이 대단한 이유



유아인 주연 '지옥'의 한 장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이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지옥' 3일간 4348만 시간 시청 '1위'

글로벌 OTT 순위 산정하는 '플릭스패트롤'
지옥 786점 1위·미애니 '아케인' 645점 2위
CNN "시청자 사로잡는 새로운 오징어게임"

24일 플릭스패트롤은 한국드라마 '지옥'이 23일 기준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19일 190개국에서 공개된 '지옥'은 '많이 본 콘텐츠' 순위를 공개하는 90개국 가운데 36개국에서 1위였다.

플릭스패트롤은 넷플릭스를 비롯해 HBO,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순위를 매일 산정, 발표하는 사이트이다. 각 OTT의 국가별 자체 순위에 1위 10점, 2위 9점, 3위 8점... 순으로 점수를 줘 이를 합산해 세계 랭킹을 내놓는다. '지옥'은 786점으로, 2위인 미국 애니메이션 '아케인'의 645점을 앞질렀다. 하지만 이는 "실제 시청수가 아니"라고 사이트는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24일 넷플릭스가 내놓은 순위는 '지옥'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한다. 넷플릭스는 '지옥'이 글로벌 톱10의 '비영어 TV'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콘텐츠의 시청 시간을 집계한 결과로, '지옥'은 공개 이후 3일 동안 4348만 시간을 기록했다. 2위인 콜롬비아 드라마 '더 퀸 오브 플로'의 3864만 시간보다 484만 시간 많다. 또 영어권 1위인 '아케인'의 3842만 시간도 뛰어넘었다.

이는 넷플릭의 '공식 발표'라는 점 말고도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시청 규모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플릭스는 이젠까지 '최소 2분 이상 시청한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했지만 실제 시청 규모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시각을 모았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5시(한국시간) 작품별 콘텐츠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전 주 월~일요일 한 주 동안 전 세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와 TV 부문 작품을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나눠 10편씩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작품 공개 이후 첫 28일 동안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글로벌 톱10도 내놓는다. 미국 유력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 투자자, 제작사에 대한 넷플릭스의 정보 제공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라고 썼다.

이에 따라 '지옥'의 전 세계 1위는 그만큼 가시적인 인기를 보여준다. 미국 CNN은 '지옥'이 "시청자를 사로잡는 새로운 '오징어게임'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올해 한국드라마가 끝내준다(South Korean dramas are killing it this year)"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넷플릭스는 '지옥'과 함께 '오징어게임'(3위), '연모'(4위), '갯마을 차차차'(6위)도 글로벌 톱10에 들었다고 발표했다.

유여수 기자 tadada@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충청남도(양배추·국산), 사과(충청남도(사과·국산), 브로콜리(충청남도(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충청남도(산사나무열매·국산), 매실(충청남도(매실·국산))

100% 국산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고 편안한 속이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실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더합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